

# 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ngbird

# 우리들의 운동회

| 2015 06 30

여류 작가 하퍼 리의 6세 여아의 시각으로 풀어낸 성장소설 같은, 아니 성인이 돼서야 읽고 있는 나에게 시대를 고스란히 녹여 만든 현대사적인 소설이라 정의하고 싶다.

소설 속 두 가지 사건이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종교적 이유로 이웃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철저히 자신들 안에서만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소외된 가정 레들리 가족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고, 두 번째는 백인이기에 반드시 옳다는 편파적 판결로 무고한 젊은 흑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통해 미국 남부 지역의 극심한 인종차별을 그려냈다. 화자인 스카웃은 과거 사고나 치고 다니는, 그래서 남의 비난을 피해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부 레들리라는 인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라며 그의 집 앞을 지나다니기에도 두려워한다. 스카웃은 오빠 잼과 이웃 포레 딜이라는 자유분방한 아이와 함께 부 레들리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계획한다. 이 도전의 과정에서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막연한 두려움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마침내 닫힌 빗장이 열리듯 공포감과 두려움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변하게 된다.

한편, 스카웃의 아버지 애티커스 변호사는 백인 여성을 강간하고 달아났다는 누명을 쓴 흑인 톰 로빈슨을 변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스카웃은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게 된다. 이

는 스카웃이 아버지의 행동에 의문을 갖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저자 하퍼 리의 아버지는 흑인을 변론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였다. 저자는 작품 속 소녀를 통해 증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가해지는 어른들의 불합리한 집단 이기주의를 소설 속에 녹여낸다.

변호사 애티커스의 용기 있는 태도는 당장 힘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하던 원하지 않은 항상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 결말에 아쉬움을 갖지만,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진보적 태도와 함께 여전히 만연해 있는 종교분쟁,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용기와 뜻이 있는 이들이 함께 바꾸어 가야 한다는 어른으로서의 의무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왜 '앵무새 죽이기'인가 하는 의문은 앵무새를 향해 새총을 겨누는 스카웃에게 아빠와 모디 아줌마가 해준 말로 정리된다. "앵무새들은 인산을 위해 노래를 불러 줄 뿐이지. 사람들의 채소밭에서 무엇을 따먹지도 않고, 옥수수 창고에 동지를 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되는 거야."

우리도 애티커스 변호사와 같이 정의를 향해 단호하고 부드럽게 다가갈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집단적 사고에 젖어 들지 않고 자기들만의 순수하고 거침없는 사고로 어른들에게 부끄러움이 뭔지 일깨워 줄 수 있길 바란다.

< shanghaiabang.com >



며칠 전 상하이한인운동회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테이블 위가 가득 찼다. 다 정리하고 나니 이런 즐거움도 또 하나의 추억으로 쌓이면서 지난 20여년 간의 상하이 한인들의 각종 행사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행사에 한인들로 북적북적하고 공연 구경하러 애들 챙기랴 평소 구입하기 힘든 정성껏 만든 음식들 먹고 마시고 특가 판매하는 물건들 사느라 정신없어도 언제까지나 매년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제행무상이라고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계속 짧아져만 가는 가을을 만끽하느라 여기저기 행사들이 많았다. 매년 행사에 손님으로 갔다가 올해는 나도 한 부스에서 캐서 역할을 맡았다. 시시때때로 음식도 팔고 호객행위도 했다. 동지애로 뭉친 언니동생들과 수다도 떨며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한다 하니 참 보람있는 일이다.

우리 부스에서는 부침개 전류를 판매했다. 난 어깨염증으로 요즘 힘쓰는 일을 못한다고 얘기해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면제됐다. 전전 날부터 언니들은 각종 채소를 사서 썰고 삶고 섞고 대갓집 명절 못지않게 모여서 시식 단계까지 마치고 나왔다고 했다. 정말 전우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간들이 부럽지만 부럽지가 않았다. 나는 그런 일들을 한국에 있을 때 어릴 적부터 해와서 그런지 암튼 그랬다.

이젠 기름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나는 돈이나 받으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다들 음식 준비하느라 행사장에서 끊임없이 부쳐내느라 힘들텐데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사람 없었고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조차 행사 분위기 때문인지 다들 반가워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나는 친하지는 않지만 안면익는 사람들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재밌었다. 예전 시골 장터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다.

우천으로 야외경기는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중간에 한국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공연만 잠깐 봤는데 역시 젊고 힘찬 그 박자감이 너무 멋졌다.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운동경기가 끝나고 경품행사가 있다고 들어오라고 여기저기서 불려댄다. 우린 특별한 물욕도 없다고 생각해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뭐... 설사 항공권, TV가 당첨된다 한들 가져가는 손이 미안할 것 같아 아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부스를 다 정리하고 용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려고 하던 참에 관계자가 빨리 경품 참가하라고 계속 다그쳤다. 정말 마지 못해 들어가 번호표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업들이 후원을 많이 했는지 참가자 모두에게 일단 줄서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한세트를 나눠줬다. 그게 끝인가 했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번호를 불렀다. 누구는 안경 쿠폰 누구는 식당쿠폰, 화장품 4단계 세트 등등 나는 운 좋게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관장 홍삼석류청매실즙을 받아 기분이 너무 좋았다. 누가 우리가 물욕이 없다고 했던가. 평소엔 건강을 생각해 절대 내 돈 주고 안 사먹는 맛난 초코파이도 한상자씩 무료로 나눠 준다니 받으러 갔다가 다 나갔다고 아쉬워하다가 미리 받아온 친구가 몇 개 나눠주니 그것도 기쁘게 받아와 딸에게 주면서 좋아하는 내가 웃긴다.

부침개 장사로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출이 목표액의 반도 안됐지만 결과보다 과정과 경험이었다. 누군가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수고로움으로 인해 해외에서의 한국인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kseo70@qq.com)

## 연세수학

# 겨울방학 프로그램

**NEW** 국제학교 수학GPA관리 클리닉

SAT 수학 상설반

상해한국학교 AP CALCULUS

한국수학	국제학교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6학년</li> <li>• 중학교 전과정</li> <li>• 고등수학 상, 하, I, II, 미적분</li> <li>• 상해한국학교 내신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 Mathematics HL/SL</li> <li>• AP Calculus AB/BC</li> <li>• AP Precalculus</li> <li>• AP Statistics</li> </ul>

wechat | shysmath      문의 | 185 1214 1580

## KAN EDUCATION

# 칸 아카데미 주니어 겨울특강

온라인 / 오프라인

# 12월 16일 ~ 1월 3일

(1주 단위로 수업 등록 가능!)

- 문학작품 : 소설, 시, 희곡 & 다양한 아티클 분석
- 중요 문법 정리
- 단어 집중 학습
- 철저한 에세이 첨삭 & 리라이팅
- 학생 관리 시스템 - 수업후 관리 프로그램 통해 숙제관리 & 1:1 클리닉
- 정확한 진단 평가를 통한 레벨별 수업

shanghaiKAN

위챗 shanghaiKAN | kaneducation.com | 구베이 완커광장(북) 705호